

북한 주민의 통일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 내용의 체계화 방안

한 만 길*

◁ 목 차 ▷

- | | |
|---|-----------------------------------|
| I. 문제의 제기 | 주의 |
| II. 북한 주민의 통일사회 적응 양상 전망 | IV. 북한 주민의 통일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 내용의 체계화 |
| III. 북한 주민 교육의 접근 방법 : 문화적 보편주의와 문화적 상대 | V. 결론 : 통일사회를 위한 준비 |

I. 문제의 제기

남북한은 지난 50년 분단의 과정을 거쳐 오면서 상호간 갈등과 반목이 지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남북간의 이질성도 심화되어 왔다. 이로 인하여 남북한의 통일이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분단으로 인한 후유증은 심각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통일 이후에 나타날 분단 후유증은 개인의 심리적인 차원에서부터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 걸쳐 보편적으

* 한국교육개발원 통일교육팀장

로 나타날 것이다.

특히 통일 이후 북한 주민들의 갈등과 부적응은 남한 주민들에 비해 더욱 심각할 것이다. 그것은 통일 이후의 사회는 어떠한 형태이든지 개방적인 민주사회일 것이며 자유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시장경제 체제가 수립될 것이기 때문이다.¹⁾ 현재 북한 주민들은 폐쇄적인 독재체제, 국가 통제의 계획경제 체제에서 생활하는 데 익숙해 있기 때문에 통일 이후의 개방적인 민주사회, 시장경제 체제에서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더우기 북한 주민들은 남한 주민들의 의식과 가치관, 그리고 생활 방식과 태도에 대하여 생소함과 격차를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부적응과 갈등은 심각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남한 주민들은 개인주의, 자유주의, 합리주의, 사적 이익의 추구, 자유 경쟁과 개인의 노력을 통한 보상 추구 등의 가치의식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은 집단주의, 공동체의식, 인정주의, 사적 이익의 금기시, 출신성분과 충성도에 따른 보상 등의 가치의식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이 남북한 주민의 의식과 가치관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 현실에서 통일 이후에는 남북한 주민의 의식적인 괴리와 갈등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것이다. 만약 통일 사회가 남한과 유사한 형태로 실현된다고 가정할 때 북한 주민들이 겪는 갈등은 더욱 심각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이 통일 사회에서 겪게 될 적응양상을 전망해 보고 그들의 원만한 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북한 주민의 통일사회 적응 양상을 전망해 보고, 이에 기초하여 통일사회에서 북한 주민의 적응 교육 방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북한 주민의 통일사회 적응 양상은 탈북 이주자의 남한 사회 적응 실태,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인성 특성을 고려하여 유추하는 방법으로 전망해 보았다. 북한 주민들이 통일사회에서 적응하는 데 있어서 적응 양상의 긍정적 측면

1) 이 논문은 통일 후의 국가체제를 기본적으로 개방적인 민주주의 정치체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전제한다. 이는 국제적인 추세로서 공산주의체제의 붕괴, 중국의 개혁과 개방정책, 그리고 남북 관계에서 남한의 전반적인 국력 우위, 북한의 경제 침체 등 요인을 고려할 때 타당한 전제라고 본다.

과 부정적 측면을 구분하여 정리해 보았으며, 이에 기초하여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II. 북한 주민의 통일사회 적응 양상 전망

통일 이후의 북한 사회 상황을 전망하고 주민들의 적응 양상을 전망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현재 북한 사회의 현실과 주민들의 생활 양태를 정확히 파악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통일 이후의 상황을 예측하기는 그 보다 더욱 어려운 작업이다.

그러나 북한 주민에 대한 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북한의 통일 사회 상황을 전망해 보고, 북한 주민의 행동 특성을 예측하는 것은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 사회에서 북한 주민들을 학습자로 볼 때 학습자의 특성과 학습자가 처하고 있는 학습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통일 사회에서 북한 주민들의 적응 양상을 예측하기 위하여 이전에 이루어진 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리하였다. 우선 통일 이후의 북한 사회 상황에 대한 예측 연구들이 여기에 포함되었다.²⁾ 이러한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서 통일 이후에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인 변화 양상을 제시하였다. 또한 북한 주민들의 적응 양상을 예측하기 위하여 북한 주민의 인성 특성 연구,³⁾ 탈북 이주자의 남한 사회 적응 실태 연구⁴⁾ 등의 결과를

2) 한백연구실, “통일한국 당면과제 예측,” 「포럼 21」한백연구재단, 1993년 8집; 차재호, “통일한국의 사회심리학적 문제와 전망,” 「포럼 21」한백연구재단, 1993년; 한국교육개발원, 「남북한 학생과 주민의 통일사회적응 연구」 1995; 박영호, 「통일 이후 국민통합방안 연구」 민족통일연구원, 1994; 이우영, “통일 이후 단계에서의 융화 방안,” 강광식 외 공저, 「통일 후유증 극복 방안 연구」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3) 서재진, 「또 하나의 북한사회」나남, 1996; 서재진, 「북한주민의 인성 연구」 민족통일연구원, 1992.

4) 한만길 “탈북이주자의 남한 사회 적응문제와 재사회화 방안,” 「통일연구논총」 제5권

〈표 1〉 북한 주민의 통일사회 적응양상과 교육 방안

생활영역	적응 양상 전망		교육 방안
	순적응	부적응	
정치생활	- 집단에의 충실 - 의무감, 봉사정신 - 순응적 태도	- 수동적 태도 - 권리의식 부족 - 자율적 판단력 부족 - 능동적 참여의식 부족 - 법제도 이해 부족	- 민주주의 이해 - 주체사상과 우상화비판 - 산업화, 정보화, 개방화 - 권리와 책임의식 - 법제도 이해 - 정치 참여 의식
경제생활	- 근면성 - 내핍생활 - 강인성	- 수동적 경제 행위 - 국가에 대한 의존 - 경제적 풍요에 대한 지나친 기대 - 자본주의 경제에 부정적 태도 견지	- 시장경제의 장단점 인식 - 사회주의 경제의 특징과 문제 인식 - 자율적 경제행위와 자유 경쟁 이해 - 경제 지식 정보의 습득
사회문화생활	- 단결심, 공동체 의식 - 조직지향성 - 도덕규범의식 - 인정과 의리 - 소박함	- 개인주의 기피 - 심리적 불안정과 정체성 상실 - 가부장 의식 - 영어, 역사, 한문, 경제 지식의 미숙 - 대중문화에 대한 거부감	- 심리적 정체성 형성 - 문화의 다양성 이해와 수용자세 - 민족문화와 공동체 의식 형성 - 대중문화에 대한 비판의식 - 대중사회의 지식, 정보습득 능력 구비
직업생활	- 근면성 - 강인성	- 취업과 사회적 지위 불안정 - 직무능력의 미흡 - 직무관행 미숙	- 진로·직업 선택 - 직업기술의 훈련 - 직업정보의 습득 - 직장의 풍토 이해

참고하였다. 현재 북한 주민의 인성 특성을 고려하고 탈북 이주자의 적응 실태를 참고하여 북한 주민들이 통일 사회에서 보여줄 적응 양상을 전망해 보았다.

통일 사회에서 북한 주민들의 적응 양상은 현재 남한에서 탈북자들의 적응 양상과 유사할 것이다. 통일사회는 남한 사회와 유사한 사회체제를 갖추게 될 것으로 전제할 때 북한 주민들의 통일 사회 적응 양상을 전망하는데 있어서 탈북자의 남한 사회 적응 양상은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예측은 가상적인 사실을 유추하여 미래를 전망해 본다는 한계가 있다. 통일 사회에서 북한 주민의 적응 양상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이러한 유추에 의한 미래 전망이 이 연구의 한계라는 사실을 미리 밝힌다.

먼저 통일사회에서 북한 주민들의 적응 양상을 정리하여 표로서 제시하였다. <표 1>은 북한 주민들의 적응 양상을 순적응 측면과 부적응 측면으로 나누어 정리하였으며, 적응 양상에 따른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절에서 적응 양상을 설명하고 교육 방안은 다음 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1. 정치생활의 적응 양상

통일 이후의 사회에서 북한은 정치적으로 혼란과 갈등을 야기할 것이다. 첫번째 문제는 북한 사회 내부의 정치적인 갈등이고, 두번째 문제는 남북한의 지역적인 갈등이다. 북한 내부의 정치적인 불안정 상황이 전개되면서 각 정치 세력과 집단들은 권력을 둘러싼 갈등이 표면화될 것이다.⁵⁾ 북한의 당 간부를 비롯한 기득권층의 불만과 일반 주민들의 저항 또는 보복 사태

2호, 1996 ; 민족통일연구원. 박종철 외, 「북한 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민족통일연구원, 1996.

5) 한백연구실, “정치 분야의 통일 상황 예측,” 「한백 21」 1993, p. 23 ; 박광주, “통일 한국의 정치적 갈등구조,” 한국정치학회 편, 「통일한국의 새로운 이념과 질서의 모색」, 1993, p. 47.

가 야기될 것이다. 또한 남북 간에는 권력을 둘러싼 갈등뿐만 아니라 상호 정체 체제와 의식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은 정치적인 이념과 체제의 불안정, 그리고 지도층에 대한 불신이 증대되면서 정체성을 상실하고 방황하게 될 것이다. 특히 북한 주민들은 오랜동안 권위주의 체제에서 복종적이고 수동적인 태도⁶⁾를 내면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정치적인 태도를 습득하는 데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더욱이 북한 주민들은 개방적인 민주사회에 대하여 아무런 지식과 정보를 갖지 못하고 실질적인 체험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통일 사회에 적응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통일 사회에서 북한 주민들은 정치적인 이념의 차이, 권리와 책임에 대한 인식의 부족, 자신의 의사결정 능력의 부족과 경험의 미비로 인하여 부적응 양상을 보일 것이다.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 민주적인 질서와 규칙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인하여 불만을 느끼게 될 것이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북한 주민들이 민주사회에서 적응하는 데에는 신분과 계층에 따른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예컨대 고위 간부들은 북한의 지배체제의 정당성에 대한 확신이 강하기 때문에 그들이 통일된 민주사회에 적응하는 데에는 그만큼 어려운 점도 많을 것이다. 반면에 일반 주민이나 정치적으로 소외되었던 계층은 북한의 지배 이념에 대한 신념이 약할 것이므로 민주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적을 것이다. 또한 중간 지식인 계층은 외부의 정보가 유입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빠르게 적응해 갈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북한 주민 교육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한 이해, 북한의 주체사상과 우상화에 대한 비판의식 형성, 권리와 책임의식의 형성, 정치 생활에 대한 능동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6) 서재진, 「북한 주민의 인성 연구」 민족통일연구원, 1992, p. 72.

2. 경제 생활 영역의 적응 양상

통일 이후에 북한은 경제적으로 침체 상황 속에서 새로운 발전에 대한 기대와 욕구가 충만해 질 것이다. 북한 주민들은 북한 지역에서 새로운 경제적인 개발에 적극 참여할 것이며, 한편으로는 남한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주민들이 발생함으로써 상당한 이동과 동요가 예상되기도 한다.

북한 주민들은 남북한의 경제적인 격차에 대하여 민감하게 인식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열등의식과 모멸감을 갖게 될 것이다. 경제적 격차로 인하여 남북한 주민 간에는 갈등이 예상된다. 북한 주민들은 한편으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호의적 태도를 가질 것이며, 동시에 부정적 태도를 갖는 이중성을 띠는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에 대하여 거부감을 갖는 집단도 발생할 것이다.

북한 주민들의 경제적인 태도에서는 시장경제에 적응하기 부족한 측면이 노출될 것이다. 그들은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능동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경험을 갖고 있지 않다. 북한의 경제는 국가통제의 사회주의 계획경제로서 국가의 계획과 통제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경제행위도 당과 조직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 타율적으로 수행될 뿐이다. 그리하여 개인이 능동적이며 창의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는데 어려운 측면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남보다 더욱 열심히 일함으로써 더 많은 보상을 받으려는 경쟁의식도 부족하며, 미래 생활을 대비하는 마음자세도 부족하다.⁷⁾ 한마디로 말하면 북한 주민들은 경제적인 관념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시키는 대로 일하고 주는 대로 받는 것이 북한 주민들의 경제적인 행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생활 영역에서는 시장경제의 장단점을 바르게 이해하고,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현실과 문제를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시장경제

7) 서재진, 앞의 책, p. 87.

체제에서 자유경쟁과 자율적인 경제 행위를 이해하는 한편, 시장경제의 부정적 요인에 대하여 적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사회문화 생활 영역의 적응 양상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북한 주민들은 북한 체제의 혼란으로 인하여 가치관의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며, 심각한 불안 심리와 좌절감에 휩싸일 것이다.⁸⁾ 북한 주민들은 심한 패배의식에서 무기력감과 허탈감에 빠져 들면서, 무정부적 공격 심리를 표출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남한 주민들에 대하여 열등의식과 혐오감을 표출할 것이며, 북한 지도층에 대하여 강한 분노와 저항을 나타낼 것이다.

통일사회에서 북한 주민들은 개방사회와 대중사회의 문화적인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은 폐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북한 문화에서 벗어나 개방적이며 물질주의적인 대중문화에 접하게 되면서 많은 부적응을 경험할 것이다. 문화적인 변화에 쉽게 적응하는 집단도 있을 것이지만 적응하지 못하는 집단은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 주민들은 남한의 개인주의적 태도, 사유재산 제도, 자유경쟁의 원칙, 빈부의 격차, 자율적인 대중조직, 남녀 평등 의식, 개방적인 언론 매체 등을 접하면서 남북한 간의 차이 때문에 부적응을 경험할 것이다. 북한 주민들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현실을 경험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개인의 사적인 이득을 취득하는 원리, 즉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른 재산의 취득, 개인 의사에 따른 자유경쟁과 타인과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태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개방적인 민주사회에서 남녀 관계, 언론의 기능, 대중 문화의 실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주민들 가운데 사회주의에 대한 확신이 강한 이들은 남한의 자본주

8) 한백연구실, “통일 이후의 사회문화적인 상황 예측,” 「한백 21」 1993, p. 21 ; 이장호 편, 「남북의 장벽을 넘어서 : 통일과 심리적 화합」, 중앙적성출판사.

의를 접하는 순간 상당히 당황하게 될 것이다. 이들은 시장경제와 개인주의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질 것이다. 특히 남한 사회의 물질주의, 이기주의, 향락과 소비 풍조 등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에 대하여 강한 반발심과 거부감을 표출할 것이다.

또한 북한 주민들은 조직과 명령에 따른 통제에 익숙해 있으며 수동적이고 타율적인 태도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 사회에서 이들은 조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사회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갖지 못할 것이다. 북한 주민들은 각종 사회조직에서 노동당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인 역할만을 담당하게 된다. 한 마디로 말하면 북한 주민들에게는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서 자율적인 사회조직을 구성한다거나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 주민들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고려할 때 심리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민족문화에 대한 인식과 대중문화에 대한 비판적인 수용 태도를 갖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북한 주민들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갖고 사회문화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직업 생활 영역의 적응 양상

통일 이후 북한 주민들은 대량의 실업 사태에 직면할 것이며, 남한 사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빈곤 상태를 쉽게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북한의 산업 시설은 대부분 노후화하여 가동하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의 산업 시설에 취업하고 있는 노동 인력은 대부분 실직할 것이다.⁹⁾ 북한 주민들은 직업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직업 상실과 동시에 사회적 지위의 변동 또는 상실도 예상할 수 있다. 북한 지역에서 대량의 실업 사태와 동시에 이들은 상당수가 생계를 유지하고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남

9) 선한승, 「북한 노동자의 적응력 실태와 인력활용 방안」 한국노동연구원, 1995, p. 153.

한으로 이주하는 이동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북한 주민들은 경제적인 빈곤, 실직 사태, 사회적 지위 상실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계층 하락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북한 주민들은 경제적인 빈곤 형상, 그리고 직업 능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대부분 육체 노동자로 전락할 것이며, 3D직종이나 서비스 업종에 종사할 것이다. 모든 부문에서 북한 주민들은 사회적 지위가 하락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직업 능력이나 지식 기술 수준에서 남한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열세하기 때문이다.

북한 주민들의 인성과 직업 능력으로 보아서 직업의식, 직업 풍토에의 적응, 근무 능력과 태도 면에서 부적응을 경험할 것이다. 북한은 국가 인력 계획에 기초하여 국가에서 직업을 결정하고 직장을 배치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은 자신의 직업을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태도가 미숙하다. 통일 이후에도 북한 주민들은 직업의식 면에서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를 견지할 것이다. 북한 주민들은 과업 지향적이며 경쟁적인 직업 풍토에 익숙하지 못하다. 자신에게 부과되는 업무와 과제를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데 부족함이 많을 것이다. 또한 북한 주민들은 복잡한 인간관계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것이며, 이로 인하여 직장 생활, 사회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북한은 직업 기술 능력이 상당한 정도로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직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할 것이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서 습득한 지식과 기술은 남한에서 거의 쓸모 없을 정도로 낙후되어 있다고 한다.¹⁰⁾

따라서 통일사회에서 북한 주민에 대한 직업 적응 교육은 가장 긴급하고도 필수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직업 적응 교육으로서 진로 및 직업 선택을 위한 교육, 직업기술 훈련, 직업 정보의 습득 방법을 터득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10) 한만길, 앞의 글, p. 231.

III. 북한 주민 교육의 접근 방법 : 문화적 보편주의와 문화적 상대주의

북한 주민에 대한 교육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접근 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첫째는 ‘교수’와 재사회화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며, 이는 통일 사회의 특성에 기초하여 이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과 행동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는 ‘학습’ 또는 사회적응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며, 이는 북한 사회와 주민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들 스스로 통일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고양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다. ‘교수’와 재사회화의 접근은 문화적 보편주의의 관점에 기초하는 것이며,¹¹⁾ 학습과 사회적응의 접근은 문화적 상대주의의 관점에 기초하는 것이다.¹²⁾

문화적 보편주의는 통일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와 지식 체계를 전제로 하고 이를 북한 주민들에게 ‘교수’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다. 보편적인 가치와 지식 체계는 현재의 남한 사회에서 중시하고 있는 가치와 지식을 기본으로 한다. 즉 민주주의 사회, 시장경제 체제에서 추구하고 있는 지식과 가치 체계를 보편적으로 전제하면서 이를 통일 사회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전수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또한 북한 주민들을 이미 공산주의 체제에서 사회화되어 있는 대상으로 간주하고 이를 민주주의 체제에서 재사회화하는

11) 문화적 보편주의 관점은 주로 탈북자 또는 북한 주민의 적응 대책을 모색하는 정책 연구에서 접근하고 있다. 예컨대, 한만길 “탈북 이주자의 남한 사회 적응문제와 재사회화 방안,” 박종철 등의 「북한 이탈 주민의 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등이 이에 해당한다.

12) 문화적 상대주의 접근은 주로 문화인류학의 관점에 기초하여 탈북자 또는 북한 주민이 우리와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인정하고 공존을 모색해야 한다는 이론적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조혜정의 “분단과 공존”-제3의 공간을 열어가는 통일교육을 지향하며-(1997), 그리고 “통일공간과 문화: 비판적 재해석”(통일연구 창간호, 1997); 이장호, “남북한 주민의 의식구조 격차와 통일교육에의 시사점,” 한국교육개발원 제3회 통일교육포럼 자료(1997. 4. 18)가 있다.

과정으로 보는 것이다. 북한 주민들의 의식과 가치관은 남한과 다르다는 측면을 중시하면서 이를 동질화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다.

반면에 문화적 상대주의는 북한 사회와 주민들의 특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학습 과정을 마련하고 사회적응을 돕도록 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보편적인 지식과 가치를 전제하기 이전에 북한 주민들은 지금까지 어떠한 교육을 받아 왔으며 어떠한 지식과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중시한다. 또한 북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학습 내용이 무엇이고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우선적인 관심을 둔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은 남한 주민들과 서로 다른 가치관과 의식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수용하려는 관점이다. 북한 주민들의 이질성을 인정하면서 이질적인 요인이 공존할 수 있다는 점을 수용하는 것이다.

문화적 보편주의는 남한이 통일의 주체임을 중시하면서 남한의 지식과 가치 체계를 북한 주민들에게 전파시키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문화적 상대주의는 북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학습 요소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그들 스스로 학습의 과정을 모색하도록 하는 것이다. 남한 중심의 통일 사회가 전개된다고 가정할 때 북한 주민들도 남한 중심의 학습 과정에 참여할 것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볼 때 문화적 보편주의는 남한 중심인 반면에 문화적 상대주의는 북한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적 보편주의는 통일 사회의 동질성을 추구하는 데 초점이 있는 반면에 문화적 상대주의는 이질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남북한의 문화적 이질성을 전제로 하면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다. 특히 북한 주민들은 남한과는 다른 사회주의, 집단주의 사회에서 그들 나름대로 남한과는 다른 인성 특성을 형성하고 있음을 존중하는 것이다. 북한 주민들의 특성을 우선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문화적 보편주의는 남북한의 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하고 동질화 작업을 추진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그리고 문화적 상대주의는 북한의 문화적 특성을 보존하고 유지시키는 데 효과적일 것이다. 반면에 북한 주민에 대한 교육을 문화적 보편주의에 기초하여 접근할 때 문화적 편견에 빠질 오류가 있다. 남한의 가치와 지식 체계를 중심으로 그것을 북한

주민들에게 전파시키고자 한다면 남한의 가치와 지식에 대한 우월성, 그리고 북한의 지식과 가치에 대한 열등성을 전제로 하는 문화적 편견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남한 주민들의 우월의식을 더욱 고취시키는 한편, 북한 주민들의 열등의식을 고조시킬 수 있다. 그리하여 북한 주민들의 불만감과 저항의식을 더욱 부추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문화적 상대주의는 북한 주민의 특성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들의 열세한 문화적 지위를 온존시키고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들의 폐쇄적인 의식구조, 수동적인 생활 태도, 인정과 의리를 중시하는 온정주의, 단순하고 소박한 인성 특성 등을 유지하면서 현대의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산업사회에서 효과적으로 적응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특성을 인정하고 유지하도록 한다면 북한 주민들은 급변하는 산업 사회에 적응하는 데 더욱 지체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들의 비교 열세인 상태를 온존시킬 수 있는 것이다.

북한 주민의 통일 사회교육은 이상의 두 가지 관점을 상호 보완할 필요가 있다. 우선 통일 사회에서 남북한 주민들이 보편적으로 갖추어야 할 지식과 가치 체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민주주의 사회와 시장경제 체제가 지향하는 보편적인 지식과 가치 체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남북한이 하나의 통일 사회를 수립하는 데에는 공통적인 이념과 체제를 지향하고 가치와 의식을 공유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일 사회는 보편성과 동시에 다양성을 추구하고, 동질성을 회복하면서 이질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보편적인 지식과 가치 체계라고 하더라도 북한 사회와 주민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육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북한 사회의 장점을 인정하고 북한 주민들이 남한 주민들과 다른 인성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그들을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그들의 다른 특성을 고양시키는 과정도 중요하다.

Ⅳ. 북한 주민의 통일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 내용의 체계화

북한 주민의 통일사회 적응 교육은 기본적으로 전체주의와 획일주의, 수동성으로 내면화되어 있는 북한 주민의 의식과 태도를 극복하고, 민주주의와 다원주의, 능동성을 중심으로 하는 규범 의식과 태도를 형성하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또한 통일사회에서 북한 주민들은 민족공동체 의식, 민주시민 의식, 시장경제의 생활태도를 습득함으로써 남한 주민과 더불어 하나의 공동체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목표에 기초하여 정치, 경제, 사회문화 직업생활 영역에서 통일사회 적응 교육의 내용을 제시하기로 한다.

1. 정치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

통일 이후의 사회에서 북한 주민들의 적응 대책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민주적인 생활방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개방적인 사회, 다양한 가치와 행동이 허용되고 있는 민주사회에서 자신의 판단과 의지에 따라서 의사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의사결정능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일상생활 속에서 민주적인 법질서와 규범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그것을 습관화할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통일사회에서 정치생활 영역에서는 민주주의의 이념과 체제에 대한 이해, 현대사회의 특징과 시민생활에 대한 이해, 민주주의 법과 제도에 대한 이해, 민주적인 생활 태도의 형성이 중요한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북한 사회에서 이미 형성하고 있는 정치 이념과 태도에 대한 교육적 처치가 필요하다. 북한 주민들이 내면화하고 있는 사회주의 정치 사상

교양과 김일성에 대한 충실성을 불식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로 접근할 수 있다. 첫째로 긍정적인 처치로서 새로운 민주주의 사상과 태도를 형성시킴으로써 그것을 불식시키는 방법이다. 둘째는 부정적인 처치로서 북한의 정치사상 교양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것을 비판함으로써 불식시키도록 하는 방법이다. 기본적으로 첫 번째 방법을 중심으로 하되 두 번째 방법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정치사상에 대하여 지나치게 비판하게 될 경우 북한 주민들의 반발이 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1)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이해

북한 주민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없다. 오히려 사회주의와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교화되어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보다는 오해가 더 심할 것이다. 따라서 정치생활 영역에서 민주주의의 이념과 체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모하는 한편, 사회주의와 김일성 주체사상의 모순과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할 것이다.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차이점, 그리고 각 이념과 체제의 발전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동시에 현대사회의 세계적인 경향으로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남한의 정치체제와 관련하여 민주정치의 발전과정과 형태, 남북한의 정치체제의 차이와 특징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와 관련하여 형성 배경과 발전 과정, 그리고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는 어떠한 차이와 특징이 있는가에 대하여 바르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주체사상에 관하여 객관적이며 사실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주체사상이 북한의 정치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2) 현대사회와 시민생활 이해

북한 주민들은 개인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이는 사회주의에 의하

여 정치의식을 형성하고, 집단주의 사회조직 속에서 생활하였기 때문이다. 이로써 북한 주민들은 조직의 일원으로서 당과 수령의 지시와 명령에 순응적으로 복종할 뿐이며 개인의 의지와 판단을 중시하지 않는다. 당과 조직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개인의 의무이며 미덕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의 시민사회는 개인의 의지와 권리, 그리고 책임의식에 기초하여 성립된다고 할 수 있다. 현대 산업사회는 개인의 능력과 의지, 그리고 개인이 추구하는 관심과 이익은 기본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개인주의 사고방식이 발전되어 왔다. 사회 공동체도 개인의 자율적인 의사결정 능력과 공동선의 추구를 전제로 해서 성립된다. 말하자면 개인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이익의 추구는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의 공동 이익에 합치할 것이라는 가정이 개인주의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이 개방적인 민주사회와 발전된 산업사회에 적응하려면 개인주의에 대한 이해와 개인주의적인 생활태도의 형성이 필요하다. 우선 현대사회의 특징으로서 산업화, 정보화, 개방화가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이 필요할 것이다. 그로 인하여 자신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인식과 동시에 타인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존중도 필요하다. 개인으로부터 출발하여 사회, 국가, 세계의 관계가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한편 북한 사회주의 사회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집단의식, 권위와 질서에 대한 순종의 태도를 인정하고 이를 고양시키는 방법도 필요할 것이다. 북한 주민들의 특성을 존중해 주면서 동시에 남한 주민들의 지나친 개인주의, 이기주의 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3) 민주주의 법과 제도의 이해

북한 주민들은 당과 수령의 명령이 바로 법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당과 조직이 명령을 내리고 지시하는 대로 복종하는 것이 곧 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알고 있다. 북한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지위가 높

은 사람일수록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한다.

이렇게 볼 때 북한 주민들이 통일사회에 적응하려면 민주사회의 법 이념과 실재를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법의 이념으로서 만인의 평등, 사회적인 정의 실현의 제도로서의 법 정신에 대하여 바르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구체적으로 법의 종류와 체계, 법이 제정되고 집행되는 과정, 개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 개인간 또는 사회적인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를 알아야 할 것이다.

또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는 여러가지 제도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선거제도, 지방자치제도, 정당과 정치제도, 언론과 여론 형성 과정, 그리고 시민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한편 북한 주민들은 오랜 동안 국가의 통제 속에서 생활해 왔기 때문에 법과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합리적인 사회생활의 방식을 터득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인정과 의리를 중시하면서 단순하고 소박한 생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법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그들이 인정과 의리를 중시하면서 소박하게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다.

4) 민주적인 생활 태도의 형성

북한은 독재 체제이면서 권위주의 사회이다. 북한의 권위주의 사회는 권력자, 고위층, 연장자, 남자 등 사회적으로 권위를 획득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든 권력을 행사한다. 말하자면 상하간의 위계 관계에 의해서 사회적인 관계가 형성되며 조직이 관리되고 있다. 개인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권위주의적 행태가 투영되고 있는 것이 북한의 현실이다.

이러한 북한의 현실로 볼 때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가 실현되기는 대단히 어렵다. 말하자면 민주시민으로서 개인의 인생을 실현하고 타인과의 조화로운 생활을 통하여 사회생활의 보람을 느끼며, 시민으

로서 사회와 국가의 사업에 참여하고, 나아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자신의 책임과 의무에 충실하는 시민의식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북한 주민들은 오로지 당과 조직의 명령에 충실하는 것이 권리요, 책임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이 통일된 민주사회에 적응하려면 민주적인 생활 태도를 형성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선 개인으로서 개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며 자아실현을 통하여 인생의 보람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생활을 통하여 공중도덕과 사회질서를 지키면서 타인과의 관계를 원만히 하는 인간관계의 자세를 터득하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공해문제, 환경문제, 청소년문제 등과 같은 공공의 관심사에 대하여 바람직한 의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국가 발전과 민족의 융화, 민족공동체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태도를 갖도록 해야 한다.

2. 시장 경제 생활의 적응을 위한 교육

북한 주민들은 자본주의의 원리와 시장경제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태도를 형성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시장경제 체제에서 사적인 자유와 이윤추구의 자유가 허용되고 있다는 점, 자유경쟁의 허용과 규칙의 준수, 생산과 소비, 화폐와 상품의 가치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의 경제생활 측면에서 건전한 소비생활과 저축, 그리고 미래 생활에 대한 계획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차등적인 보상이 제공되며, 그로 인하여 빈부의 차이도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한다.

북한 주민들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남한 사회의 부정적인 요인에 대하여 실망감을 가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들은 남한 사회에서 빈부의 격차와 차별, 그리고 가진 이들이 자신의 부를 과시하고 못 가진 이들을 멸시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남한 사회의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물질 만능주의, 금전 만능주의, 그리고 이로 인하여 야

기되는 인간적인 차별과 무시에 대하여 분개할 것이다. 이러한 자본주의 문제점을 고려할 때, 북한 주민들에게 통일 이후의 사회에서 발생할지도 모를 남북한 주민의 사회적인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자본주의 문제점에 대한 수용 태세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하여 이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1)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경제의 차이점 이해

북한 주민들은 우선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특성이 무엇이며, 사회주의 계획경제와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경제의 장단점에 대하여 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형성, 발전과정을 이해하고 북한 경제가 침체되어 왔던 근본적인 이유를 사실적으로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북한 경제의 침체 원인으로서 통제경제의 비효율성과 생산성 저하 현상, 사적 소유의 금지에 따른 주민들의 근로의욕 저하, 대외적인 폐쇄성으로 인한 경제협력의 제한 등과 같은 문제를 바르게 인식하도록 한다.

또한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체제와 비교해서 남한의 자본주의 경제가 지니고 있는 특성에 대하여 이해하도록 한다. 즉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 과정과 의미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체제의 중요한 특징과 기본적인 원리를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북한 주민들은 자본주의의 부정적 측면에 대하여 지나치게 교육받아 왔기 때문에 그러한 인식을 불식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남한의 경제 실상, 시장 경제의 개방적이고 활기찬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경험적으로 인식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시장 경제생활의 기본 원리와 태도 형성

북한 주민들이 시장경제체제에서 일상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려면 시장

경제의 생활원리와 태도를 형성해야 한다. 시장경제의 기본 지식과 정보를 습득해야 하며, 생산, 소비, 근로, 저축 등과 같은 경제생활의 원리와 태도를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

북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경제생활의 원리는 능력주의와 개인소유주의로 대별할 수 있다. 능력주의는 개인의 소질과 관심에 따라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여 자신의 경제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능력과 노력의 결과로서 정당한 보상을 받으려는 태도는 능력주의에 기초한다. 소유주의는 개인의 사적인 재산권을 인정하고, 재산의 증식과 소득의 향상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려는 태도이다. 개인소유주의는 개인의 사적인 이윤 추구를 허용하면서 동시에 이윤추구의 과정에서 자유경쟁과 공정한 경쟁의 원리를 인정하는 태도이다.

또한 개인의 경제생활에서 구체적인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필요가 있다. 생산과 유통의 과정, 소비생활, 근로정신, 저축과 생활설계, 세금제도, 금융과 보험제도, 가게의 운영 등과 같은 분야의 생활지식을 습득해야 할 것이다.

북한 주민들은 초기에는 시장경제에 참여하는 데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다. 그들의 경제적 태도는 국가 주도의 경제 운영에 수동적으로 임하면서 국가에서 시키는대로 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이다. 통일 사회에서는 그들의 경제적인 욕구를 촉발시키고 자발적인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3) 시장경제의 장단점 인식과 수용적 태도 형성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시장경제를 체험하게 되면 시장경제의 장점을 이해하면서도 단점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많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들은 시장경제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하여 대단히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에게 시장경제의 부정적인 측면을 인식시키면서 동시에 그에 대한 수용 태세를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북한 주민들이 가질 수 있는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인 요인과 동시에 부정적인 요인이 있다. 즉 시장경제 사회에서 빈부의 격차가 심하다든가, 부의 과시와 못 가진 이들에 대한 멸시, 사회적인 부패와 타락 현상이 심하다는 문제이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은 시장경제의 장점과 동시에 단점을 정확히 인식하면서 그에 적절히 적응할 수 있는 대응 태세를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시장경제는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경제적인 소득이 결정된다는 점, 그리고 부의 세습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불평등이 초래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한다. 개인의 능력과 노력의 차이에 따른 차등적인 보상은 시장경제의 현실로서는 당연한 현상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빈부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도 시장경제의 현실임을 인식하는 동시에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

3. 사회문화 생활 영역의 적응을 위한 교육

통일사회에서 북한 주민들은 개인주의에 대한 이해, 그리고 다양하고 개방적인 사회에서 상호 간에 협력할 수 있는 태도를 함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양한 조직과 집단의 형성, 언론의 자유, 가족의 기능과 가정의 중요성, 대중문화의 개방성 등에 대한 이해와 수용 능력이 필요하다.

한편으로 민주사회의 부정적인 요인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이에 대한 대처 능력도 함양할 필요가 있다. 탈북자들은 남한 사회의 물질만능주의, 퇴폐·향락적인 분위기, 인간에 대한 차별의식 등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북한 주민들은 자존심이 강하고 순수하고 소박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남한 주민들은 이기적이고 이중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불신감을 갖게 한다. 또한 남한의 방송매체들이 지나치게 퇴폐적이고 향락적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건전한 교양을 전파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방송매체를 통하여 전달되고 있는 온갖 사회적 부조리와 사건들은 남한 사회에 대한 혐오감을 심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대중사회, 개방사회의 특성을 사실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부정적인 측면을 비판적으로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말하자면 개방적인 민주사회의 순기능적 측면과 동시에 역기능적 측면을 사실대로 이해하면서 자신의 비판적인 인식과 대응 태세를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1) 심리적 정체감 형성을 위한 교육

북한 주민들은 북한의 사회주의 이념과 체제가 붕괴하게 되면 심리적인 정체감을 상실하고 좌절감과 당혹감에 사로 잡힐 될 것이다. 또한 남한 사회의 경제적 풍요로부터 오는 상대적 빈곤 의식과 빈부 격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될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 발전 실상을 체험하게 되면서 그 동안 내재되어 있던 가치관과 신념이 허구임을 깨닫게 될 것이며 그에 따른 실망감과 배신감에 심한 심리적 갈등을 겪게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은 통일 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이념과 가치체계를 형성하고 이를 내면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다원적인 민주사회에서 자신의 가치관을 형성하면서 다양한 가치의식을 개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태도를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북한 주민들이 절대적으로 신봉하던 가치관은 현대의 개방 사회에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자신의 신념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자세를 갖도록 해야 한다.

2) 문화의 다양성 이해

북한 주민들이 남북한 공통의 문화적 동질성을 인식하고 우리 민족이 공유하고 있는 전통 문화와 풍습을 습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남북한은 같은 민족임을 상기시키고, 분단 이전의 오랜 역사 속에서 동일한 전통과 문화를 지녀 왔음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우리 민족에게 내재화되어 있고 오랜동안 계승되는 전통과 문화는 체제의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같은 민족으로서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데 기초가 될 것이다.

한편 통일 이후 북한 주민들은 실제 생활의 여러 국면에서 문화적 차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언어와 생활 방식의 차이로 인한

부적응은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문화적 차이로 인한 혼란은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다양한 삶의 많은 장면에서 크고 작은 갈등과 이질감을 느끼도록 할 뿐 만 아니라 정치·경제적 차이에서 오는 혼란을 극복하는 것보다 오랜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할 것이다. 북한 주민들은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서로 다른 문화를 개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대중문화의 현실과 문제 인식

북한 주민들은 언론과 정보가 차단되어 있는 통제 사회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남한의 대중적인 언론 문화에 커다란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사회주의 체제에서 발표와 토론의 기회는 많았을 것이지만 이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활용된 경우가 대부분이며, 자유롭고 개방적인 분위기에서 토론하는 기회는 갖지 못하였다.

이로써 북한 주민들이 개방적이며 다원적인 민주사회에 적응하려면 대중적인 언론매체의 역할과 특성을 이해해야 할 것이며, 방대한 정보와 지식을 선별하여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있게 펼치면서 상대방의 의견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대화와 토론의 태도를 습득해야 한다.

한편 대중문화가 갖고 있는 향락적이며 소비적인 측면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이에 쉽사리 몰입하지 않는 자율적인 판단력과 선택의지를 가지도록 해야 한다. 북한 주민들은 개방적인 문화에 접한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대중사회의 향락적이고 소비적인 풍토에 접하게 되면 쉽사리 탐닉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대중문화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자율적인 통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직업 생활 영역의 적응을 위한 교육

통일사회에서 북한 주민들의 직업 적응은 가장 절실하고 시급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는 북한 주민들이 직업생활 영역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장 많이 그리고 심각하게 나타날 것이며, 주민들의 생계와 직접 관련되기 때문이다. 직업생활은 삶의 물질적 기반이자 자아실현의 수단이므로 직업생활의 적응은 북한 주민들에게 가장 긴급하고도 현실적인 과업이 될 것이다. 더욱이 북한 주민들은 산업사회에서 직업 기술 능력이 부족하고 직업 풍토에 적응할 수 있는 의식과 태도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북한 주민과 학생들의 직업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은 크게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다. 첫째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바람직한 직장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자세나 태도 및 올바른 직업관 형성 영역이며, 두 번째는 주민 스스로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토대로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알맞는 직업 및 진로를 선택하고,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하는 영역이다. 세 번째는 남북한의 산업 구조 및 기술 수준의 현격한 차이로 인하여 발생할 구조적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초적 직업 능력 배양 및 산업·기술 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직업교육 실천 영역이다.

한편 우리의 관점과 실정에 비추어볼 때 북한 주민들의 직업 능력과 태도에 미숙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직업적 태도의 장점과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 북한 주민들은 일반적으로 근면하고 강인한 인성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들의 이러한 특성을 인정하고 장려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 주민들의 낙후된 기술 능력을 너무 과소 평가한다면 그들의 자존심을 손상시킬 것이며, 반발을 사게 될 것으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1) 직업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 형성

통일사회에서 북한 주민들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에는 개인의 직업생활 적응이 가장 중요하다. 당을 중심으로 한 계급이 개인의 모든 사회생활을 좌우하던 체제에서 직업을 중심으로 개인의 모든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는 직업중심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

다. 이러한 배경을 전제로 할 때, 북한 주민들이 통일사회에서 직업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삶과 일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의 궁극적 삶의 목표인 행복과 직업과의 관계를 새롭게 우선적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말하자면 직업의 소중함, 그리고 직업을 통하여 자신의 삶이 결정된다는 인식을 중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시장경제체제에서 자신의 직업과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인 태도와 책임의식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맡은 업무에 대하여 자신의 노력과 능력을 다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며,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 질 수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직무 수행의 관행, 직장의 풍토에 관하여 익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북한 주민들은 직업과 업무에 대한 태도가 다르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직업 자체가 자신의 선택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업도 상부의 지시와 명령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직업에 대한 애착과 업무에 대한 열의가 부족하다. 이러한 태도가 만성화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들의 근로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2) 합리적인 진로 선택

통일사회에서는 북한의 주민들은 진로 및 직업 선택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통일사회는 자기 스스로 진로 및 직업을 선택해야 되며, 직업 세계는 폐쇄적인 북한 사회와는 다르게 훨씬 더 복잡하고 세분화될 것이다. 북한 주민들은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직업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통일사회에서 북한 주민들은 자아에 대한 주체적인 판단과 정확한 이해, 그리고 산업 사회와 직업 세계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고 미래 산업 사회의 변화를 전망하여 희망적인 직업 분야를 선택할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 또한 자신이 선택한 진로나 직업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어떠한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하며, 그와 같은 교육과 훈련은 어디에서, 언제, 누구에 의하여 실시되는지 등 각종 직업교육

·훈련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숙지하여야 한다. 특히, 북한에서 이미 받은 교육이나 훈련이 통일사회에서 쓸모없게 되거나 낙후될 때 새로운 교육이나 훈련을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정보 습득은 직업생활 적응의 필수적인 과제이다.

3) 직업기술의 습득

통일 사회는 지금의 북한 사회보다 산업 및 과학기술 측면에서 발전된 사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북한지역에 현존하는 산업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쇠퇴하고, 새로운 산업이 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따라서 모든 직업인들이 새로운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기초적인 지식과 기술을 필수적으로 습득하여야 한다. 더욱이 현재 북한의 산업 기술 수준이 전반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통일 사회에서 북한의 산업 기술 수준은 더욱 쓸모없게 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의 직업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직업교육이 필수적이다. 기초적인 직업 기술의 습득에서부터 고도의 첨단화된 기술 수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와 수준의 직업 기술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북한 주민들의 직업 관련 자격과 학력을 인정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현재 소지하고 있는 학력과 자격에 대한 검증과 더불어 이를 통일 사회의 제도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여 인정해 주어야 한다. 또한 주민들의 학력과 자격에 준하여 그에 적합한 재교육 및 보충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북한 주민들의 학력과 자격을 전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이며, 전적으로 부인하여 박탈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V. 결론 : 통일사회를 위한 준비

통일 사회에서 북한 주민들은 모든 생활영역에 걸쳐 많은 부적응 양상을 경험할 것이다. 이는 탈북자들의 남한 사회 적응 양상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실이다. 탈북자들은 남한 사회에서 자신들이 생활해 본 경험에 비추어보면서 통일 이후 북한 주민들은 더욱 심각한 혼란과 갈등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통일이 남한의 민주사회 중심으로 실현될 것이라고 가정할 때 통일후 현재의 탈북자들이 겪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직업생활에서의 부적응을 북한 주민들도 그대로 경험하게 될 것이다. 통일상황에서 발생하게 될 북한 주민의 부적응과 갈등은 전사회적으로, 그리고 폭발적으로 발생할 것이므로 사태의 심각성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따라서 통일 사회에서 북한 주민들이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각종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시급한 통일 대비 과제이다. 그러나 통일이 언제 어떠한 형태로 실현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리고 통일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불명확한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의 통일 사회 적응 교육 방안을 마련하는 일은 그만큼 어려운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 북한 주민에 대한 교육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현재 북한 사회의 변화 과정과 그에 따른 주민들의 적응 양태를 정확히 분석해야 한다. 북한 사회는 경제침체와 식량부족으로 인하여 주민 생활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사회주의 체제의 이완현상, 주민들의 지리적 이동의 증가, 관료의 부정과 부패 확산, 주민들의 사상적 동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의 의식과 가치관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어떠한 생활 방식을 견지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해야 한다.

둘째, 북한의 교육대상자인 학생과 주민의 연령, 직업, 지위 등 다양한 특성에 따라 적절한 교육내용을 개발해야 한다. 북한 주민의 통일사회 적응 교육은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일반적이며 보편적인 교육이다. 말하자면 주민 모두가 학습할 공통 과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사전에 습득한 지식과 정보의 수준이 다를 것이며, 관심과 필요 영역이 상이할 것이다. 특히 학생과 성인의 교육적 요구는 상당히 다를 것이다. 학생들은 일련의 교육내용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지만 성인들은 체계적인 교육이 어려울 것이다. 성인들은 경제교육이나 직업교육과 같은 현실적으로 시급한 영역의 학습내용을 우선적으 요구할 것이다.

셋째, 교육대상자의 특성에 알맞는 다양한 교육방법을 강구하고 개발해야 한다. 학생들에게는 학교교육을 통하여 통일 사회 적응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인을 비롯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교육기관과 교육매체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예컨대 북한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 사회단체, 언론매체, 기업체, 직업훈련 기관 등 다양한 기관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특히 통일 사회에서 북한 주민들이 다원적인 민주사회, 개방적인 시장경제체제를 체험을 통하여 이해하고 사실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경험적인 교육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시청각 매체, 현장 답사, 교환 방문, 교류 협력 사업 등의 방법이 교육방법으로서 효과적일 것이다.

넷째, 통일 이전이라도 북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북한 주민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 조치, 또는 북한을 방문하는 중국 조선족 교포, 재미 교포의 방문을 통하여 북한 주민들에게 의식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북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는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북한에 대한 화해 조치, 교류협력 사업 등과 같은 구체적인 사업을 통하여 보다 직접적인 효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통일 이전이라도 북한 주민들을 포용하는 대북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그들의 의식 변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우선 남한 주민들이 북한 주민에 대하여 이해하고 화합할 수 있는 통일 준비 태세를 갖추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통일 이후에 나타날 남북간의 갈등은 현재 분단 상황에서 배태된 것이며, 이를 해소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제이다. 현재 남북 간에 상존하고 있는 대립의식, 적대감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통일 이후에는 지금보다 훨씬 심각한 갈등으로 표출될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그것을 치유하려면 현재보다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통일 이후의 갈등을 최소화하려면 지금 당장 우리의 마음 속에 잠재하고 있는 적대감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 주민에 대한 화해의 심정을 형성해야 한다. 북한 주민을 우리의 이웃으로, 동포로서 따뜻이 포용할 수 있는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